

작은
마음

제2385호 2025. 1. 26.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 해외 원조 주일)

제1독서 : 느헤미야기 8.2-4, 5-6.8-10

제2독서 :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12-30 또는 12.12-14.27

복음 : 루카 복음서 1.1-4; 4.14-21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기 때문에 행복하고,
믿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을 믿어요.
모두 함께 외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제1차 세계 어린이의 날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강론)

그림_가브리엘라 수녀님

오늘의 미사

- + 화답송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 +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



함께 해서 더욱 기쁜 등촌1동성당 주님 성탄 대축일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루카 1,67-79)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면서 이 세상에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쁘게 성탄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주일학교의 최고 귀염둥이! **유치부**는 '마음의 보따리' 노래와 율동을 보여주었어요! **1학년**은 '저기 저 별이' 음악에 맞추어 멋진 율동을 선보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렸어요. **2학년**은 알록달록 우산과 함께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우산댄스! **3학년**은 '대영광송, 주님의 기도, 경사롭다' 노래를 수어로 표현했어요. **4학년**은 팀을 나누어 '산타텔미' 노래와 신나는 '울면안돼' 춤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5학년**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노래에 맞추어 야광 난타, **6학년**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연극을 통해 함께 기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기 예수님! 생일을 축하드려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말씀

이웃 사랑



11지구 도곡동 성당
신승우 도미니코 신부님

✦ 찬미 예수님!

작은 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이에요. 2025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겨울 방학도 이제 며칠 안 남았을 텐데, 새로운 한 해를 맞아 하느님 말씀을 따라 착한 일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의 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며,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 것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이면서,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기도 해요.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맞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 하시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해요!



Q.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시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나요?

- ①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 ②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 ③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 ④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제29회 작은마음 잔치 잔치 수상작

사람들의 행복

발산동 유치부 민이담 미카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

잠원동 3학년 박세연 미카엘라

2024년 9월 1일 일요일 / 날씨: 맑음
제목: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은총을 주신다. 또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 나는 하느님께서 네잎클로버를 주시는 것 같다. 사랑, 건강, 행복, 올바른 생각 이렇게 4개의 잎으로 행운을 주신다. 나는 전에 하느님께서 무슨 은총을 주시는지 몰랐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두 건강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총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건강, 서로 사랑한다는 것 모두가 은총인 것 같다. 앞으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해야겠다. "하느님 사랑해요!!"

